

### 2015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 출범

4월 8일 역사문화기념관서 오리엔테이션



연등회 보존위원회(위원장 자승)는 참이엔씨(대표 하영태)와 4월 8일 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2015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 출범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연등회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홍보와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한다.

연등회·연등축제로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홍보 등의 자원봉사를 진행할 글로벌 서포터즈가 출범했다.

연등회 보존위원회(위원장 자승)는 참이엔씨(대표 하영태)와 4월 8일 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2015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 출범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연등회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홍보와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한다.

40개국 150명 청년 참가

2개월간 한국전통문화교육

연등회 기간 통역 자원봉사

SNS에 연등회 알리기 활동도

이 체험을 시작으로 한국의 전통 문화의 특징과 이해 무형문화재 연등회 유래, 자원봉사자의 역할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앞으로 2개월간 연등회 서포터즈는 축제에 참가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통역과 안내를 맡게 된다. 아울러 연등회 진행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수행 하면서 축제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또한 서포터즈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일일 어르신 배식 자원봉사를 비롯해 광화문 점동식당은 플래시몹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포터즈는 이번 활동부터 실시간 홍보도 병행한다. 교육과정과 활동을 페이스북을 통해 알리는 'SNS 일지 작성'과 함께 팀 활동 동영상 만들어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다. 또한 후기 콘테스트 등을 진행해 세계인에게 연등회를 알리는 홍보 봉사자 역할도 진행할 계획이다.

서포터즈 지원자 카트린 벅스트림(25·독일)은 "실내 건축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데 한국전통 디자인 전시를 보고 감명받아서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는 나라 중 한국을 선택했다"며 "연등회 서포터즈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에 참여하게 돼 영광이며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참이엔씨는 "연등회는 앞으로도 글로벌 서포터즈와 같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많은 외국인들이 연등회를 친근하게 접하고 즐겨서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로서의 성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외국인 참여형 프로그램을 발굴해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나 기자

# SNS는 또다른 법당... 수행일지 등 소통

불교 소모임, 새로운

신행 트렌드로 부상

김용진(42·남) 씨는 매일 저녁 108배를 한다. 이후 친구의 초대로 가입한 네이버 밴드(BAND) 모임인 '골짜기 간다 기도방'에 수행 일지를 올려 108배를 하면서 느낀 점과 삶에서 변화된 점 등을 공유한다. 평소 불교·명상에 관심이 있었지만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지 몰랐던 김 씨는 간편한 소셜네트워킹 모임을 통해 매일 삶을 바로 잡는 습관을 기르게 됐다.

박원화(26·여)씨는 매일 'YB선우' 회원들과 정기 모임을 갖는다. 서울 관악구 성불암에 모여 지도법사 법찬 스님의 법문도 듣고, 수련회와 성지순례 등 다양한 행사도 갖는다. 또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서 서로 수도도 만들고 불교 이야기도 나누면서 '우리는 불자'라는 공동체 의식과 신심을 키우고 있다.

청년불자들의 신행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사찰 정기법회나 행사에 참석해 법문을 듣고 기도를 하는 일반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서로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 소셜네트워킹(SNS) 등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그들만의 수행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임들은 불교에 관심은 많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쉽고 가벼운 마음으로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김용진 씨는 독실한 불자 집안에서 자랐지만 개인적인 수행활동은 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최근 정토회 모임에 나가면서 친구의 초대로 '골짜기 간다 기도방'에



30여 년 전 부산 법륜불교총학생회 활동을 하던 양진호(43·남)씨는 최근 지인의 초대로 네이버 밴드 '법륜'에 가입했다. 양진호 씨가 '법륜'에 든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청년불자 신행패턴 변화 바람

법회, 봉사 등 모임 공지 SNS 활용

밴드, 채팅방서 수시로 불교주제 대화

자율적 신행 장점... 포교 대안 부상

가입해 꾸준한 수행을 실천하며 불교를 통한 새로운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 김 씨는 "불교에 대한 관심과 호감만 있던 상황에서 비슷한 뜻을 갖고 밴드 모임을 통해 기도 하고 서로 점검하니 도반으로서 의지도 되고 힘이 난다"고 말했다.

김 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카카오톡 그룹채팅 '길벗 나누기 방'을 통해 수행활동을 한다는 정여진(40·여) 씨는 "혼자서 일지

를 쓰며 수행을 해왔는데, 마음 맞는 친구들과 그룹채팅으로 점검하고 이야기를 나누니 공동체 의식도 생기고 기도에도 소홀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YB선우'는 서울 성불암 주지 법찬 스님이 이끄는 '나눔공동체 선우(禪友)'에서 만든 20대 젊은이들의 모임이다. YB는 '영부다(Young Buddha)'의 약자로 대학생, 직장인, 배우지망생, 작곡가 등 15~20명의 20대 청년들만 구성돼 있다.

YB선우 회장을 맡고 있는 한승운(29·남) 씨는 "지난 해 10월 '부다' 공연 관람 후 서로 소개하는 자리에서 불자임을 알게 되고 모임이 만들어졌다. 평소에는 사람들에게 굳이 불자라고 밝히지 않는데 같은 또래가 불자라고 하니 서로 너무 반갑워서 모임을 만든 게 시초다. 이후 법찬 스님과 인

연으로 매일 정기모임을 갖고 친목을 다지고 있다. 향후 봉사단체도 만들어 좀 더 체계적으로 청년회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잘 놀고 불교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끼리 그룹채팅방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친목을 다지니 소속감도 생기고 불자라는 자부심도 생긴다"고 말했다.

30여 년 전 부산 법륜불교총학생회 활동을 하던 양진호(43·남)씨는 최근 지인의 초대로 네이버 밴드 '법륜'에 가입했다. 30년 전 함께 학생회활동을 하던 1기 선배들부터 동기 및 10기 후배들까지 모여 있어 반갑고 감회가 새롭다. '법륜' 회원들은 밴드를 통해 서로 안부도 묻고 연 2회 가족수련회 및 정기모임과 108배 결사 등을 함께 하며 신심을 키우고 있다.

양진호 씨는 "불교학살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가 1980년대이다. 각자 사회생활을 하면서 흩어져 있다가 다시 모이니 감회가 새롭다"며 "의로계·법조계·금융권 등 다양한 분야에 선배들이 진출해 있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어 힘이 되기도 한다. 밴드 모임을 통해 그때의 추억도 나누고 불심도 다시 새길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이들의 모임은 전반적인 불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불자 또는 친불자를 불교로 이끌어냄으로써 포교에 활기를 불어넣는 새로운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포교전문가는 "시간·공간에 제약 없이 신행활동을 하지 못하던 불자들, 또 최근 힐링·치유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인들이 SNS를 통해 자율적 신행모임을 갖는 것은 긍정적 현상"이라며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은 이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나 기자 oasis1983@hyunbul.com

## 김해 바라밀선원 개원 2주년 장학금 전달

"5월 19일부터 매주 화요일 무료급식 실시"

김해 바라밀선원(주지 인혜)은 4월 4일 개원 2주년을 맞아 '기념법회 및 장학금 전달식'을 거행했다.

행사에는 바라밀선원 조실이자, 조계종 고시위원장 요산 지안 스님을 비롯해 김맹근 김해시장, 이명자 김해문화의전당 사장 등 사부대중 120여명이 참석했다.

바라밀선원은 "지난 해 개원 1주년을 계기로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작년 첫해에는 한 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고, 올해는 2주년을 두 명에게 전달했다. 내년에는 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또한 지난 해부터 지역 무의탁노인과 결식아동에게 지원활동을 펼쳐



바라밀선원 조실 지안 스님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오고 있다. 오는 5월 19일부터 매주 화요일 무료급식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055)327-2601

이어나 기자

## 삼보정사, 뽕뽕 스님 특별법회 거행

4월 19일 11시 '부다와 담마의 바른 이해' 주제

근본불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의 재가불교 신행단체인 사단법인 대한불교삼보회(이사장 박호석)가 오는 4월 19일 오전 11시에 서울 정릉의 삼보정사에서 미얀마의 아신 뽕뽕 스님(사진)을 초청해 '부다와 담마의 바른 이해'를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한다.

뽕뽕 스님은 미얀마의 썬파파다 마하씨 선원장으로 주석하면서, 부산에도 담마나 선원을 열어 양국의 불자들에게 20여년 동안 근본불교와 위법사나 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선지식이다.

특히 최근 한국어로 출간된 <11일간의



특별한 수업)과, 교계 언론 <미디어부다>의 컬럼 연재를 통해 한국불자들에게 오묘되지 않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쾌하게 전하고 있다.

불법승 삼보를 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불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없다. (02)943-2858

이어나 기자

#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빙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빙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판'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독,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 88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5년 4월 中

◆ 개강일시 : 2015년 4월 中,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 개강일시 : 2015년 4월 中 (매주 월) ◀

-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답골공원 뒤편 ☎ 02)741-0495, 0496